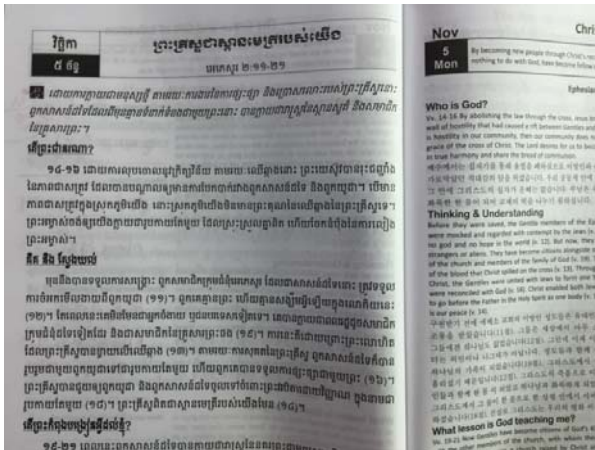


쫄리쫄어,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응급실에 다녀오는 녀석도 있고, 자정 넘어 도둑질하다 걸려 다음날 아침에 파출소에서 전화가 오길 않나... 음미...
 그래도 부엌에서 조리 도와주는 기특한 아이들도 있긴 하지요. 선교사의 사역이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을 세우는 것에
 그친다면 문제가 겹칩니다만, 복음은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런 동력이자 목적지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새벽에 매일
 한두구절 성경을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한명씩 외우는 것을 확인하지요. 못 외우면 다시 외우라고 시키고, 다 외우는
 사람은 아침을 먹으러 갈 수 있지요. 각 아이가 외우는 걸 듣고 있으면 저도 같이 외워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네요. 금방
 잊혀진답니다... ^^ 저녁에는 QT 교재(베레아번들 통어어. 사진)와 함께 하루 분량의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일상으로 인해 이슬비에
 웃 짓듯 아이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축히 젖어줄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2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유적지는 '앙코르왓'인데... 거기 가본 사람? 하고 애들에게 물었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인근에 살다가, 고아원에 온 아이들도 거기를 안 가봤다고 하더군요. 어쨌거나, 비용을 '내가 대겠다'는
 분이 계셔서 모두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일 학교와 고아원. 결국 감뽕찜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아이들에게
 앙코르왓으로의 외출은 참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편도 다섯시간 버스타고 가는 길도 전혀 지루해하지 않고 말이죠.



1

이 곳 고아원도 한해가 후딱 지나갔네요. 고아원은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꼬맹이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서로 싸우는 일은 다반사이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교실에 안 들어가는 녀석이 있지를 않나, 술담배를 하는 큰 녀석들도 있고, (도마)뻘을 잡아 놓거나, 옆집에서 과일서리 하는 꼬마들, 어디서 새끼 고양이를 애완용으로 키운다고 주워오질 않나, 용돈벌이를 위해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의자를 네다 고물상에 헐값에 팔아먹는 녀석도 있고, 이마뺨에서 피가 철철 나서

아이들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돈은 이렇게 쓰는거야, 하는 생각도 들고, 배운대로, 사랑받은대로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노부부께 참 감사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대가를 치르는 사랑, 협력하여 이루시는 선, 많은 개념들이 중첩되면서 제 마음을 지나갑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이 모여야 아이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개념 잡을 수 있을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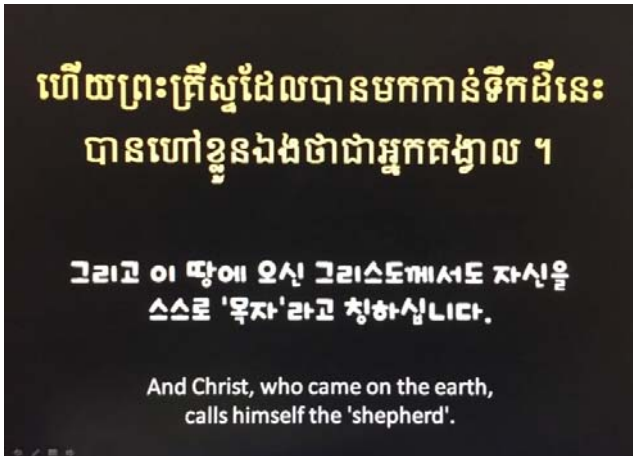


생전 처음 배를 타기도 하고, 고아원에 함께 온 피블이 ^{sibling} 와 사진도 함께 찍고 말이죠. 이박삼일이 얼마나 금방 지나갔는지, 좀 더 놀지... 아쉬우면서도, 돌아오는 길에 감뽕뽕 입구에 서 있는 동상을 보더니 몹시 반가워 합니다. 그래도 역시 집만큼 좋은건 없죠.



3

매주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부담이 되는 건 언제나 설교입니다. 한해동안의 시행착오 끝에 이렇게 사진처럼



정착했네요. 글자를 띄우지 않고 설교를 하면, 아무리 크마에^{캄보디아어로} 신경써서 해도 외국인 발음에 익숙하지 않은 이 동네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집중해서 귀기울여 들어주는 열심도 기대하기 힘들구요. 그래서 원고를 작성하면, 글자를 ppt 로 띄우고 (아유 브레아 끄리, 다엘 바안 목간 툽더이 니, 바안 아우 클루언 아영 탁, 쾀어 네악 공뽀일) 그대로 읽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한두달 했는데, 온통 크마어로 예배를 드리니 자녀들^{아준, 민준, 아임이}, 예배를 예배로 드리지 못하는 걸 알게 됐지요. 세삼스럽게... 그래서

결국 각자 편한 언어로 이해시키기 위해, 한글에, 영어까지 띄우고 스크립트를 읽어 나갑니다.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용^{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허사라는 심각성 때문에 매주 중압감이 있습니다. 초짜라서 그런가...ㅋㅋ 그래서 주말은 거의 설교 마무리 때문에 몹시 예민^{+피곤+잘못들면 폭발} 해진답니다. 주중에 원고가 완성된 건 올해 일년동안 단 한번 뿐이었죠. 매주 생각은 좀 미리미리 준비하자 인데, 그렇게 잘 되지 않네요.

4

고아원의 재산 ^{땅과 건물}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법행정적 작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약간의 추가조치만 남았죠. 캄보디아 정부가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고아원을 70% 없애고, 30%만 남기겠다고 합니다. 국공립만 끌고간다는 적의로 읽힙니다.

적어도 내년엔 고아원 라이선스 갱신이 될지 안될지 몰라서, 향후 장기적으로는 학교로 사역 우선은 유치원으로 시작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조만간 라이선스 갱신을 위한 감사 Audit 가 있을 예정입니다. 갱신이 되면 고아원과 학교를 병행해야 될 것 같고, 갱신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을 친지들에게 돌려보내고 정리하는 수순 후에 학교로 전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정부의 결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5



가족은 모두 건강히 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해동안 홈스쿨에도 잘 적응했구요. 가끔 망고도 따고, 물고기도 잡고, 게 crab 에게 물리기도 하지만, 자연친화적 환경을 나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찍은 신년인사영상 ¹³ 초분량 링크입니다.

<https://vimeo.com/308937934> (New Year's Greeting)

한해 동안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썬옴 아티탄 썬어머이 크니어

- 라이선스 관련 감사에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장기적인 사역의 방향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 말씀이 들리도록 아이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온 생명으로 복음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 아이들의 변화가 제가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매일 느낍니다. 주님 행하시고, 종을 통해 일 하시옵소서.

캄보디아 김뽕짬 고아원에서
존경과 사랑으로
정종찬(성실, 학준, 민준, 하임) 선교사 드림